

광주 녹화사업 앞장 '나무박사' 광주시청 장철근 사무관

“나무는 오염물질 ‘필터’... 녹지율 50%돼야 친환경 도시”



“나무는 오염물질 ‘필터’... 녹지율 50%돼야 친환경 도시”

“나무는 오염물질 ‘필터’... 녹지율 50%돼야 친환경 도시”

광물질·수분·공기 조화때 잘 자라

“대부분이 아름다운 도시를 생각할 때 숲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를 떠올린다”

나무는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잘 자란다. 나무의 영양분이 되는 광물질이 50%(이 중 5%는 부식질), 수분 25%, 토지 속 공기가 25% 정도

를 보인다는 것이다. 장 사무관은 “상무지구의 경우 과거 논이었기 때문에 수분을 기준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 역시 죽기 전에 제대로 처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의 외과수술이란 나무의 썩은 부위를 도려낸 뒤 우레탄 등으로 덮어 더 이상 고사를 막는 작업을 말한다.

그는 무등산에 소나무가 점차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소나무는 ‘양수(陽樹)’로 그늘진 곳, 비옥한 곳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陰樹)’다. “1960·70년대만 해도 산림은 척박했고, 나무의 수도 적었기 때문에 소나무의 생육하기에 적당했음”

“오래된 수종 영양제 주입을”

장 사무관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시 구릉지나 산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배려하고, 고밀도 토지이용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의 조화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의 녹지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비로소 광주가 저탄소·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이나 거주자가 스스로 나무를 관리할 때 광주의 녹지율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스님 30대 창작詩 다수 발굴

지난달 11일 임직한 법정스님이 30대에 쓴 시(詩)가 발굴됐다. 도서출판 은행나무는 소설가 백금남(60)씨가 5년간 집필해 최근 출간한 장편소설 ‘법정-맑고 향기로운 사람’에 스님이 30대 때 쓴 창작시 ‘다래한 일지’

기도 한 법정스님의 면모를 드러내준다. 1969년 11월9일자 ‘대한불교’에 실린 시 ‘다래한 일지’는 법정스님이 봉은사 다래현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서정적인 작품이다.



법정스님이 ‘대한불교’지에 기고한 시(詩) ‘초가을’이 실린 지면. 지난 1968년 9월1일자 신문이며, 법정스님의 친필 서명이 붙어 있다.

화선지를 펼쳐 / 전각에 인주를 묻히다 / 이슬이 내린 청결한 뜰 / 마른 바람 소리 / 아침 안개(이상 전문) /연필뉴스

윤운수 휠라코리아 회장 伊 비엘라시 명예시민 됐다



윤운수(65·오른쪽) 휠라코리아(주) 회장이 이탈리아 비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윤 회장은 최근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비엘라 시청에서 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도 젤타일(Donato Gentile)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1911년 휠라 삼형제가 모직물을 생산한 것을 시초로 휠라 브랜드가 처음 탄생한 지역이다.

비엘라시는 윤 회장이 휠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비엘라 지역의 직물산업과 장인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명예시민 선정 배경을 밝혔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문화도시 광주서 불교문화 꽃피우자”

자승스님 초청 ‘소통과 화합 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초청 ‘소통과 화합의 대법회’가 지난 1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화를 꽃피우자.”고 역설했다. 이날 광주 전남 불교기념회 회장(회장 지용현) 취임식을 대체해 열린 행사다.

이날 법회는 광주전남신도회장(회장 지용현) 취임식을 대체해 열린 행사다.

김기숙부리무용단, 이영애 가야금 병창단, 소프라노 유영민씨가 출연하는 식전행사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는 자승 스님, 조계종 원로 의원 천운스님(대흥사 조실), 송광사, 백양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불자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광주전남은 화합의 가람으로 교화를 꽃 피웠는가 하면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를 조직하여 깨달음을 얻은 등 우리 불교사상의 원류를 연 곳”이라고 전제하고 “불교문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발굴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다시 한 번 불교문

화로 꽃피우자.”고 역설했다. 이날 광주 전남 불교기념회 회장(회장 지용현) 취임식을 대체해 열린 행사다.

한편 신임 지 회장은 환영 출신으로 조선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화학약 기술자연합회장, 민주평통 자원위원, 광주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종합건설사인 (주)백제, 백제화학(주), 토암건설(주), 대동발과기술연구소 등을 경영하는 중견 기업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가·신창체육회 ‘어르신 효사랑 행복축제’



신가·신창 체육회(회장 김병원)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신창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초청, 고전무용·가야금 공연, 장기자랑 등 ‘제4회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행복 축제’를 개최했다. (신가·신창 체육회 제공)

동신대-한국공항공사 산학협력 협약



동신대(총장 정기언)는 최근 학내 부속실 소회의실에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지사장 조진현)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동신대 제공)

호남대, 中 유학생 모임 ‘공감’ 출범



호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광둥백운대학교 제1기 유학생모임인 ‘공감’(회장 천환평·무역학과 4년) 출범식이 호남대 박상철 기획처장과 이정림 중국교류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광주 상무지구 모 식당에서 열렸다. (호남대 제공)

광주교육대학-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 협약



광주교육대학(총장 박남기)는 최근 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원장 김희원)과 대학생 영어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교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정석주(명성단조(주) 부사장)·김문정씨 아들 순재군 설연결·박정숙씨 딸 기선양=24일(토) 낮 12시 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동창·동문회

- ▲재광 전주 영생교 월례회(회장 이종욱)=20일(화) 오후 7시 광산구 월계동 청석골 식당. 062-971-7717.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모집

- ▲총만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이용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정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 ▲차해씨씨 별세 근석·준석·성석·은영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양동우(남/75세) 장례 일정: 안장 04월 20일, 발인 04월 20일, 장지 임실호국원.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앙상조가 제안하는 최첨단 장례문화. 기입문의 1688-3740